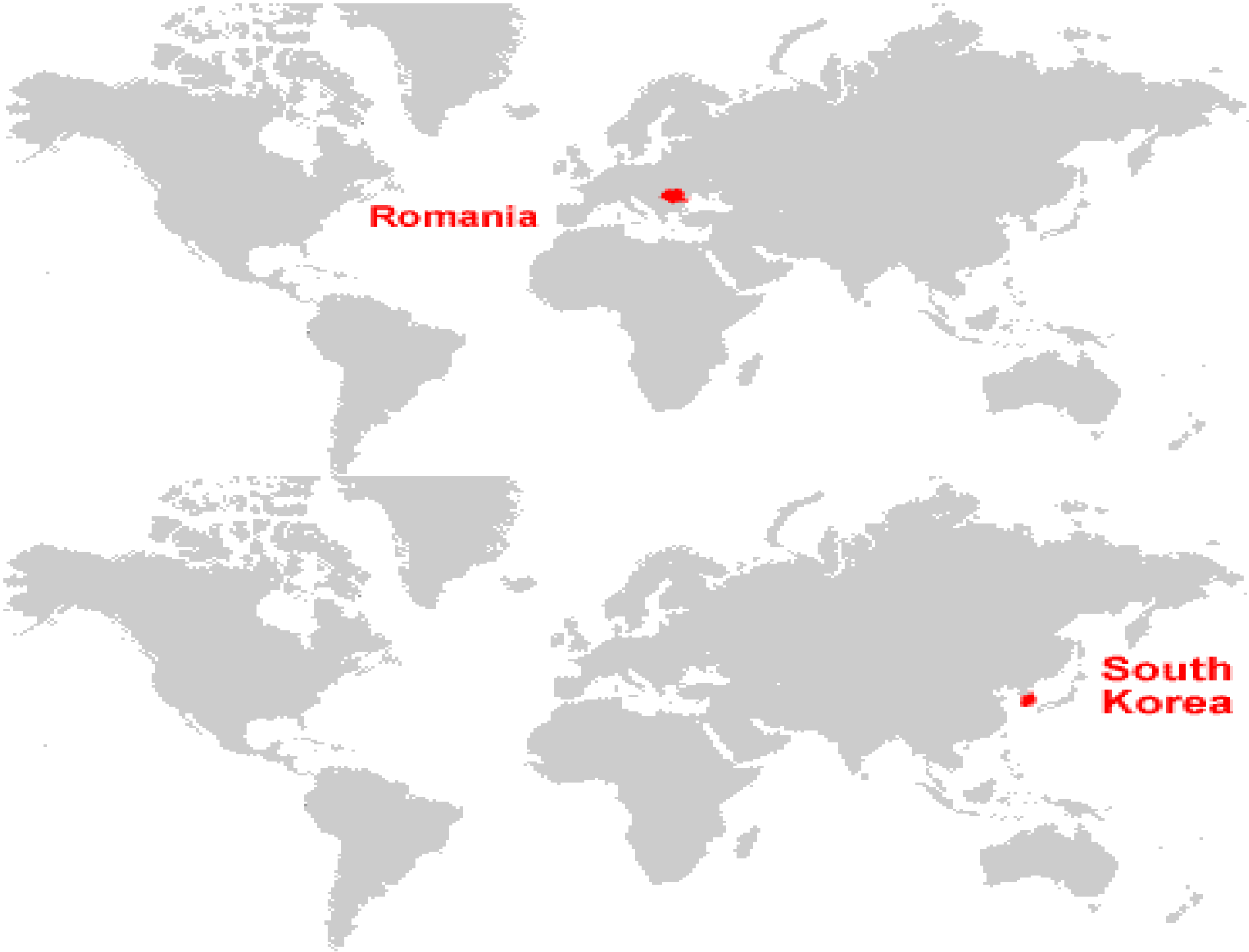
루마니아 초-중-고 지리학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

실뷰 네구츠
경제학대학교, 부카레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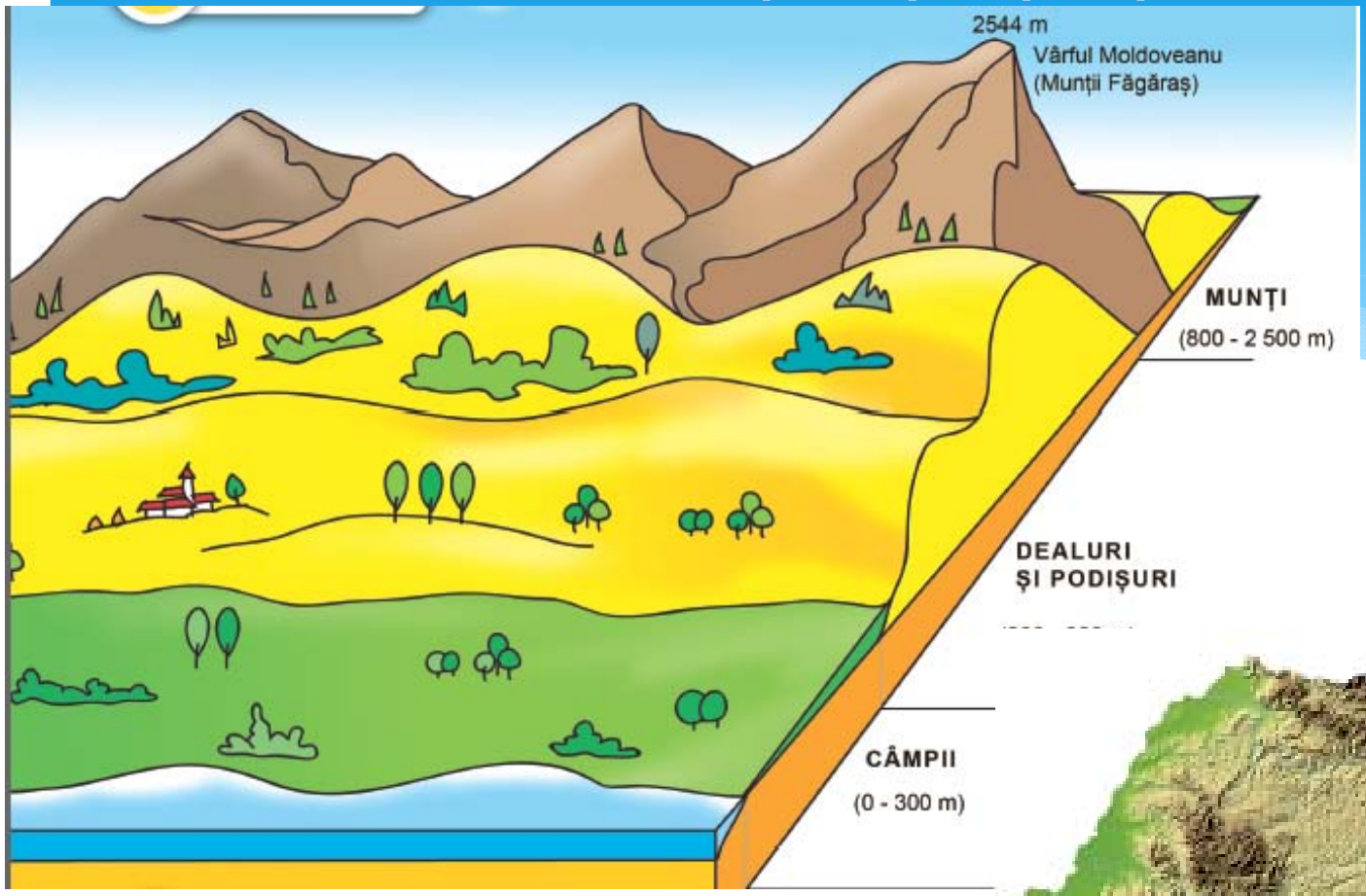

Romania
South Korea

루마니아와 한국 개황

나라	루마니아
면적(면적순)	238 391 (81위)
인구 (인구순)100만	21,7 (56위)
인구 밀도	91
인구의 자연 증가율	-2.6 %.
인종적 구조	88,9% 루마니아인 6,5% 헝가리인
출생 시 평균생존년수	71,23 남/78,36 여
식자 수준	98%
수도 (인구 100만)	부카레스트 (2.2)
국민 총생산	394 (44위)
1인당 소득	19 700 (63위)
인간개발지수	0,783 (52위)
외국인 관광객(100만)	1,9(79위)
관광 수입금 (10억/1조)	1,8 (73위)

나라	한국
면적(면적순)	99 720 (100위)
인구 (인구순)	49,2 (27위)
인구 밀도	492
인구의 자연 증가율	1,7%.
인종적 구조	97,7% 한국인 2% 일본인
출생 시 평균생존년수	76,7남, 83,1여
식자 수준	98%
수도 (인구)	서울(9.8/15.3)
국민 총생산	1800 (13위)
1인당 소득	35 400(32위)
인간개발지수	0.898 (17위)
외국인 관광객	14,2 (20위)
관광 수입금	18,2(18위)

루마니아


2544 m
Vârful Moldoveanu
(Munții Făgăraș)
MUNȚI
(800 - 2 500 m)
DEALURI
ȘI PODIȘURI
CÂMPII
(0 - 300 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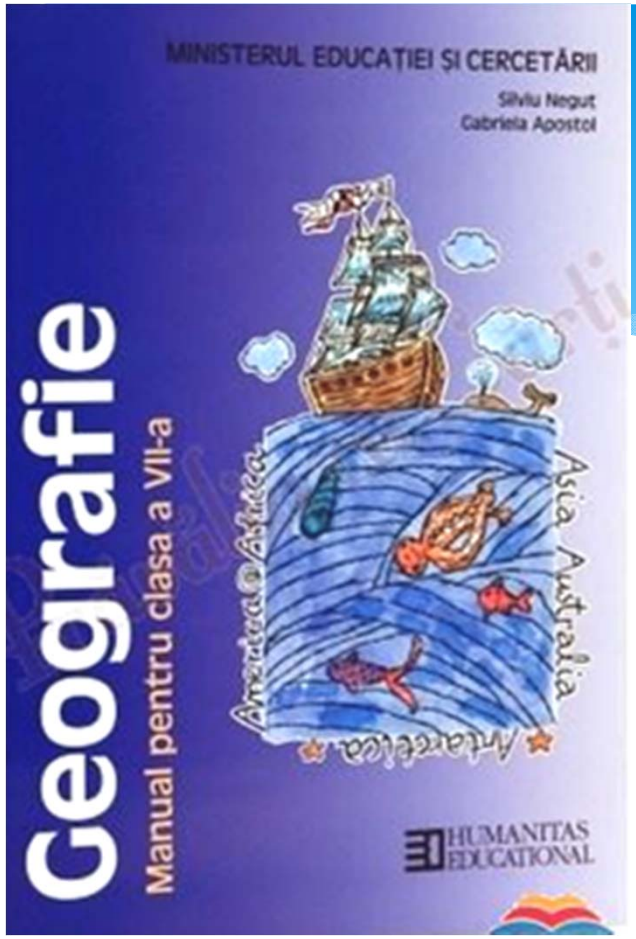
* 책의 중요성
* 지리적인 정보: 이 발표는 지리학 책/교과서와 관련된 발표임.
* 교육시키냐 정보를 알리냐는 문제
* 정보 폭팔 시대인대 학생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파악해야 된다.
* 교과서로 부터 멀티미디어로

루마니아-한국

* 한강- 두나레강
* 금강산-카르파치산
* 황해- 흑해
* 부산항구- 콘스탄차항구
* 서울수도-부카레스트수도
* 팔라툴 파르라멘툴루이 (국회 궁전?) –경복궁
* 보로네츠 수도원-종묘
* 이런 단어를 쓰거나 말하면 단어뿐 아니고 상상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음. 그래서 지리학가르치는 게 중요함.

루마니아의 교과서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이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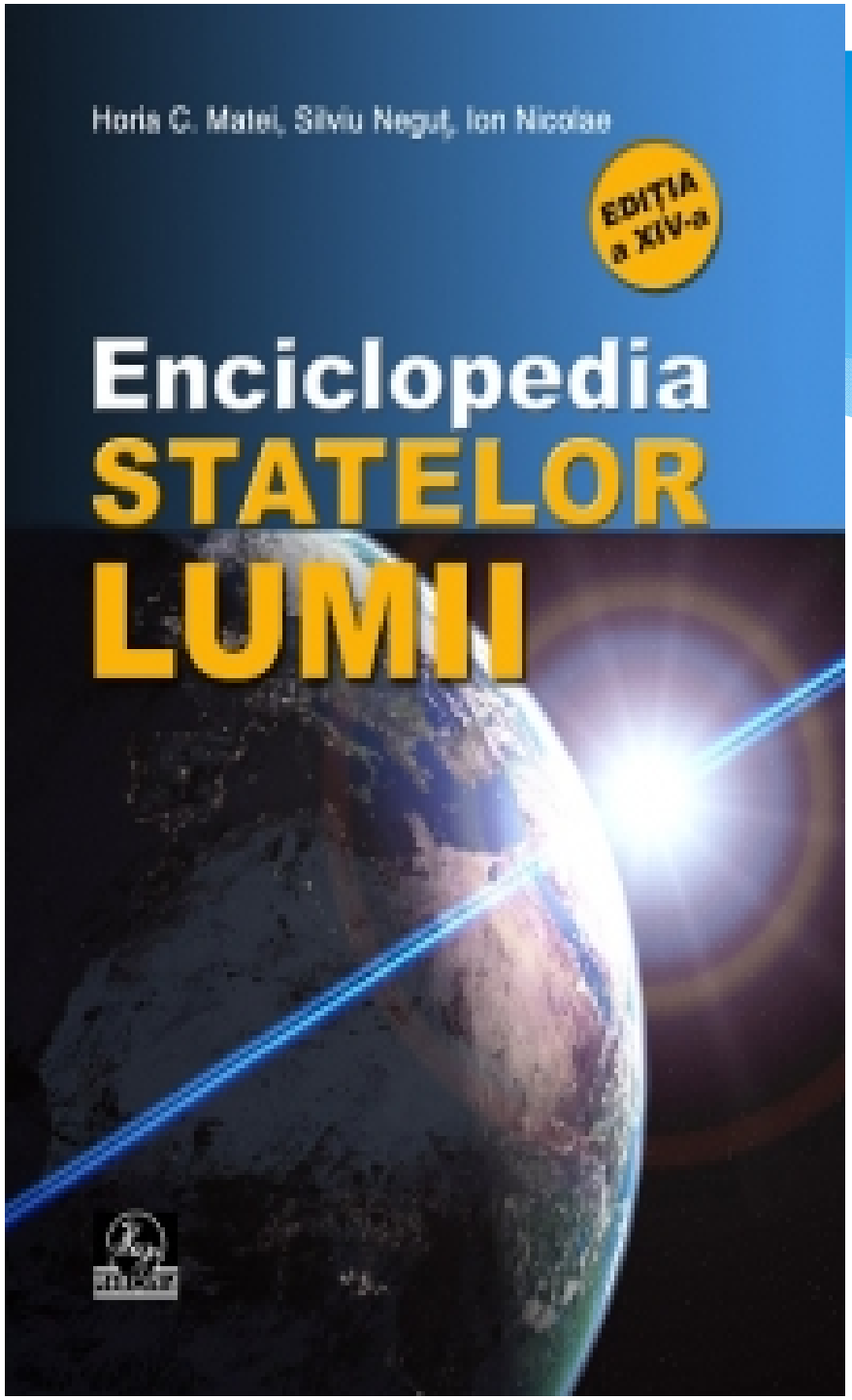
* 한국/ 대한민국 7학년의 지리학 교과서에 나타남. 이 교과서는 유럽대륙 이외의 나머진 대륙을 소개시킴.
* 지금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들 (5학년-8학년)의 내용을 1995-1999 교육 개혁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허락하였음.
* 일반 규칙으로 대륙마다 필수적으로 몇 개의 국가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음. 아시아의 경우에 중국, 인도, 일본과 터키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을 꼭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음.
* 그러나 불행하게도, 1998년에 7학년의 교과서 중 6권을 입찰에서 이겼는데, 해당 교과서 편집장의 비전이 달랐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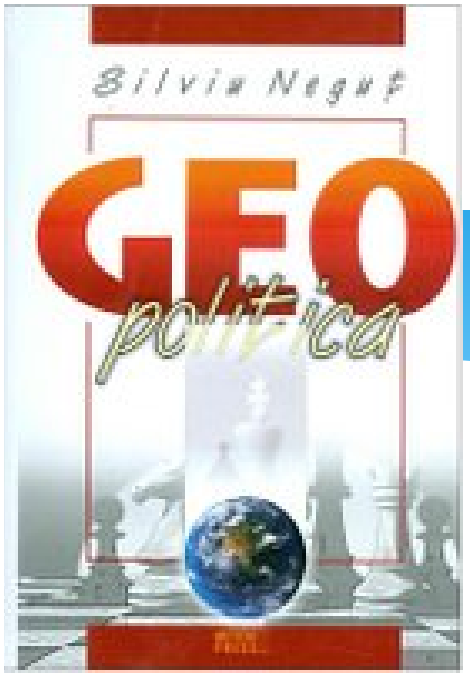
* 7학년 지리학 교과서 저자: 실뷰 네구츠와 가브리엘라 아포스톨
* 한반도가 모두 소개되고 (한반도가 나오는 유일한 교과서), 한국과 북한이 모두 소개되고 있으나, 다른 저자는 한국만 소개하고 있음
* *지정학에 관심이 많음. 추후에 한국과 북한이 통일될 것을 감안하여 북한도 수록하였음. 이 국가들이 통일하면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므로 “Korea”라고 부를것임.

* -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음: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. 이 두 개의 나라는 경제와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름.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계획경제체제이고,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며 시장경제체제임.
* 1948년까지 하나의 같은 국가였으나, 현재는 통일을 위해서 협상중에 있음.
* 대한민국의 개황 부분에서, 한국은 전세계 국가 중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며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산다고 나타남
* 아시아의 발달한 국가중에서 한국의 산업은 많이 발달되었다고 소개됨. 농업은 기계화되어 생산이 잘 되고 있으나, 쌀 이외에는 국내 필요한 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남. 농지는 반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농사를 짓는 것을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음.
* 북한과 비교하여 한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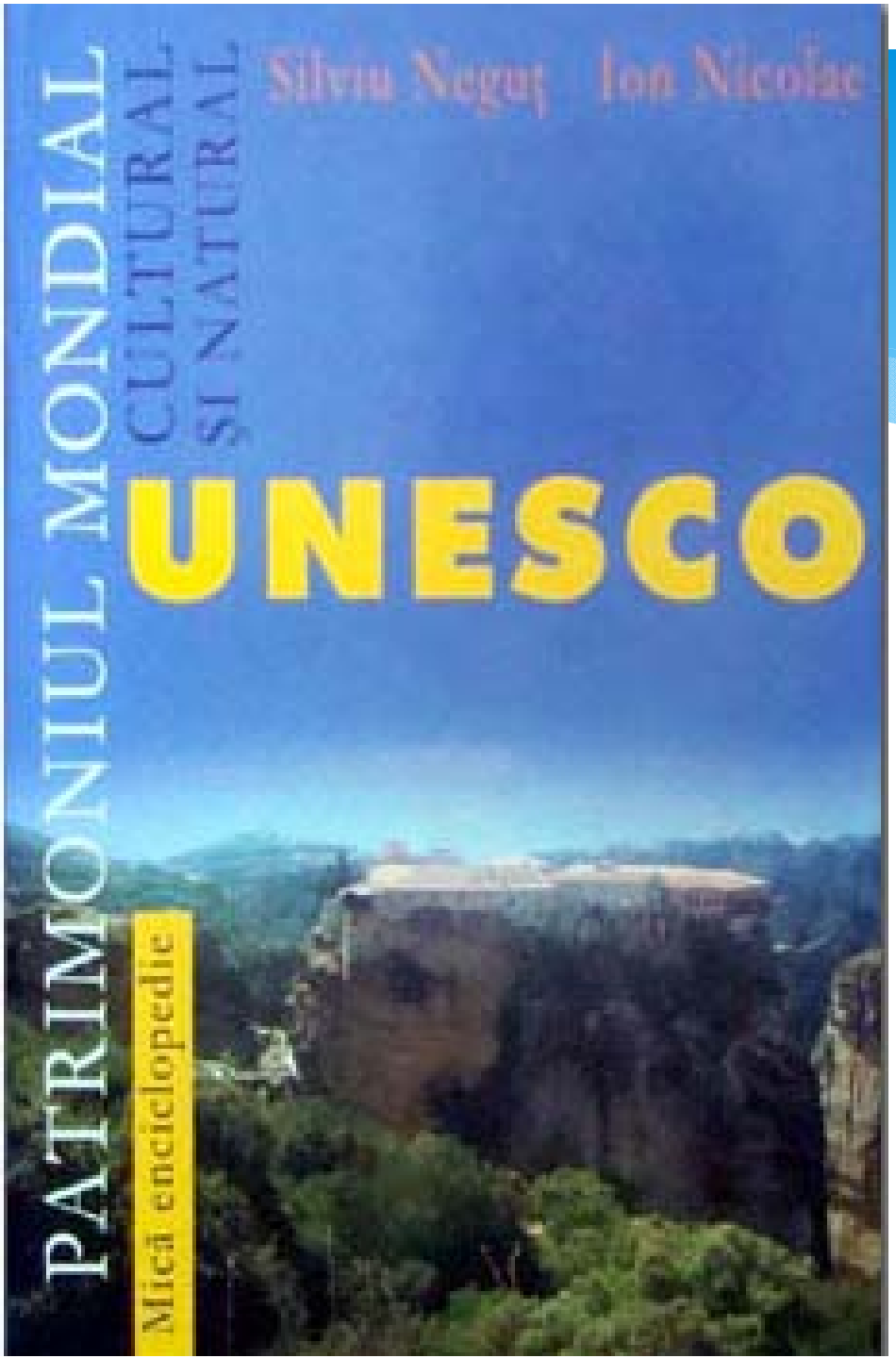
* -북한의 개황:
* 한국의 면적보다 조금 더 크지만 인구가 적음.
*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.
* 다양한 산업이 있으나 이를 수용할 역량이 부족함.
* 농업에 필요한 관개 조직이 잘되어 있으나 농사량이 매우 적음.
* 관광 명소가 있으나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음.
* 한반도에 대한 글에 붙여서 한반도 지도 하나 있고 사진 5개도 있고 그리고 끝에는 교육상 문제가 나타남.



* --다른 책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집필하였음. 이중에서 2 권은 학생을 위한 추가자료임. 이 책들의 제목은 : Enciclopedia Statelor Lumii ; Patrimoniul Mondial
* Enciclopedia Statelor Lumii (800쪽)
* 한반도: 자연과 역사
* 대한민국: 일반정보 표, 수도, 자연, 인구, 역사, 경제, 유네스코 유산.
*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: 한국과 같이 동일하게 설명함.



* 지정학 (제오폴리티카), 2015, 688 쪽.
* 한국이 으뜸패가있다고 생각해서 저자는 지역 강국의 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섰음.
* 한국의 면적은 적으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외국 시장에 잘 진입하였으며, 미국과 동맹이 있음. 북한에 대해서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은 지역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음.
* 그리고 1950년대에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
* “공산주의 국가가 무력통일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함. 북한군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한국을 침공하였음. 북한은 스탈린의 허락과 도움을 받았고,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여 한국전쟁은 끝이 났음.
* 여기 이명박 전대동령 사진도 첨부하였음.



*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·자연 유산 (공저자), 2005, 360쪽, 한국에 있는 7개 유산을 발표하였음.

루마니아 교육 체제와 학교 교과서 출판 정책

* 나보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과학부에서 일하고 있는 3명입니다.

루마니아에서 교과서를 쓰는것과 출판하는 절차

* 루마니아 공산주의 때 (1989년까지)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유일한 교과서가 있었음. 당시 공산당이 모든 교과서를 확인했음. 교과서의 질은 좋았음.
* 1989년부터 다른 동유럽 국가처럼 루마니아에서도 교육개혁이 이루어졌음. 때문에 1998 중-고등학교를 위해서 프레임워크-프로그램이 만들었는데 공산주의 책을 바꾸었음.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전의 책을 새로운 대안교재로 바꾸었음.
* 첫 번째 단계: 지리학에 작업그룹을 만들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과정과 5학년 8학년교과서의 기능을 결정했음.

* 두 번째 단계: 교과서를 위한 경쟁, 입찰자는 개인이 아니라 출판사였음. 그래서 어떤 출판사들의 저자를 선정하였음. 아니면 저자 한명이나 저자 그룹을 제안하여 출판사에 제의를 했음.
* 교과서 평가위원회는 교과서6개를 고르고, 나중에 학교 또는 교사들에 의하여 6권 중에서 하나를 가르치도록 함.
* 이 입찰의 단점은 선택의 기준이 2개 였는데 하나는 교과서 가격(50%) 그리고 과학적 품질(50%)이였음. 물론 교과서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든 출판사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음.
* 좋은 점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과서를 고를수 있는 것임.

* 본인과 본인과 함께 작업한 그룹이 같이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영감을 주는 원천이 2개 있었음:
* 하나는 옛날 교과서들
* 하나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들 (프랑스, 네달란드, 영국, 스페인,등)
* 그리고 교과서를 만들었을때 학생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: 작년교과서들이나 다른 과목에서 뭘 배워는지에 따라 (역사, 생불학, 물리학, 수학)
* 2016년에 중학교를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-플렌을 진행하게 되고 나중에 5하년부터8학년까지 그 다음 고등학교에 어떤 교과서에 쓸건지 결정할 예정임.

감사합니다.

* 이 훌륭한 나라에 초대받게 되서 정말 기쁩니다.